추억의 음악을 함께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직감성-여기는 사직라디오입니다'가 오는 12월까지 매월 격주 금요일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1층 뮤직라운지에서 열린다.

아날로그 감성 LP 음악여행 떠나요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운영
'사직감성-여기는 사직라디오입니다'
ABBA 이어 7일 비틀즈·21일 퀸
음반 2만장 뮤직라운지 눈길

'LP와 떠나는 추억의 음악여행.'

양림파출소에서 사직공원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음악카페들을 지나 쭉 올라가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이하 음악센터·광주시 남구 사직로 17)가 나온다.

이곳에는 176석 규모의 공연장과 녹음 스튜디오, 미디 교육실, 개인작업실, 레지던스, 뮤직 라운지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뮤직 라운지다. 음반, 도서를 비롯해 약 2만장에 이르는 LP까지 다양한 자료를 갖추고 있는 이곳은 음악을 창작과 함께 보고 듣고 즐기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도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뮤직 라운지 앞 쪽에는 티비가 걸려있고, 양 옆 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앨범과 음악 기본서를 비롯한 음악 관련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다.

뮤직 라운지 입구 왼쪽 벽, 빼곡히 꽂혀 있는 LP들이 눈에 띄는데 국내외 유명가수들의 LP, 나라별 대중가요 등을 비롯해 유신 시절 방송 금지 처분을 받은 LP도 있다. 이곳 뮤직 라운지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개방해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지난 6월25일 오후 이곳에서는 '사직감성-"여기는 사직라디오"입니다'(이하 사직감성) 첫 모임이 열렸다. 사직감성은 음악센터가 보유한 LP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추억의 음악을 듣고 보는 공연으로 진행자가 음악 속 다양한 이야기를 노래와 함께 들려주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공연의 주제는 '추억의 아이콘-아바(ABBA)'로 광주CBS 라디오 '문형식의 12시에 만납시다' DJ 문형식이 진행을 맡았다. 이날 뮤직 라운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로 가득찼다. 이들은 공연 시작 전, LP를 살펴보며 함께 온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뮤직 라운지 뒷편에 마련된 다과를 즐기며 공연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진행자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 스타 아바(ABBA)에 대한 소개로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첫곡은 영화 '맘마미아' OST인 'I Have A Dream'. 노래가 끝나자마자 관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이어 연인들의 승패를 워털루 전투에 빗댄 '워털루(Waterloo)', 실질적인 데뷔곡인 '링링(Ring ring)', '댄싱퀸(Dancing queen)' 등이 흘러 나오자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부르며 음악을 즐겼다. 이어 진행자가 '10년이 채 안되는 짧은 역사를 가진 밴드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을 홀렸는지', 다큐멘터리 영화 '아바 더 무비(ABBA: The Movie)', 멤버 비요른과 애니의 이혼 등 아바와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또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안단테 안단테(Andante Andante)' '위너 테이크스 잇 올(The winner takes it all)' 등도 함께 감상했다.

'사직감성'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격주 금요일(오후 7시~8시30분) 시민들을 만난다. 오는 7일에는 '팝의 레전드1-비틀즈'를 주제로 열리며 21일에는 '팝의 레전드2-퀸'이 타이틀이다. 30명 선착순 모집. 무료. 문의 062-654-3627.

/전은재 기자 ej6621@

지난 6월 25일 열린 '사직감성' 첫 모임.

뮤직 라운지에는 약 2만장에 이르는 LP가 있다.

'파꽃이 맥문동을 만났을 때…'

서양화가 최향 개인전, 5일~12일 향담갤러리

'맥문동(麥門冬)'이 꽃이름이라는 걸 안 건 바로 얼마 전이다. 사진으로 본 꽃은 소박한 모습과 보랏빛 색깔이 마음에 닿았는데, 어느 날 집 주변을 보니 바로 그 맥문동이 피어 있어 반가웠다.

서양화가 최향 작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언젠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낯선 꽃을 발견했고, 신비로운 보랏빛에 빠졌다. 그림 소재로 삼기 전에는 '존재'를 알지 못했던 맥문동은 1년여 동안 작가의 화폭 속에서 변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다.

최향 작가 개인전 '파꽃이 맥문동을 만났을 때…'가 5일부터 12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향담갤러리에서 열린다.

최 작가는 '파꽃 작가'로 불린다. 오래전 군산에서 광주로 돌아오는 길, 벌판에서 우연히 만난 '파꽃'에 반한 그녀는 몇 송이를 뽑아들고 와 그리기 시작했다. 반응은 좋았다. 취리히 아트페어에서 동양적 서정성이 느껴진다는 호평을 받았고, 서울 진화랑, 부산, 대구 등으로 이어진 전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는 오랫동안 천착했던 파꽃 그림과 함께 신작 맥문동 작업을 함께 선보인다. 작업의 출발이 추상이었던 터라 맥문동 역시 꽃에 대한 세세한 묘사 대신, 느낌과 색채를 강조하며 작업했다. 안개가 낀 듯한 흐릿한 분위기의 하늘과 어렴풋이 떠 있는 달, 변화무쌍한 색감의 맥문동이 화폭을 채운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신비롭다. 작가가 써내려간 내면적인 일기같은 느낌, 그녀가 즐겨듣는 클래식의 리듬감도 함께 묻어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다채로운 색감이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그녀는 미묘하고 미세한 색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연스레 몸에 밴 감성은 다채로운 그라데이션을 통해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늘 최 작가의 마음을 당기는 꽃은 '화려한' 관상용이 아니라, 무언가 '쓰임새'가 있는 꽃들이다. 지금까지 작업했던 파꽃이 그러하고 뿌리가 한약재로 쓰이는 맥문동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그려보고 싶은 마늘꽃도 매 한가지다. 화려하지 않고, 어딘지 미숙해 보이기도 하는 이런 꽃들은 "피었다 사라지지만 또 다른 앞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화사한 꽃으로만 끝나지 않고, 세상에 이로운 어떤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꽃들이다.

그녀의 파꽃 작업은 진화중이다. 가장 최근의 전시에서는 '트피플 환타지'라는 제목으로 기존의 파꽃 작업과 함께 추상, 조각 작품까지를 선보였고 이번 전시에서도 한발 나아간 파꽃을 선보인다. 맥문동과 파꽃을 한 화면에 배치하는 작업은 이제 출발 단계로 이번 전시에서는 두 작품을 내놓았다.

최 작가는 "아름다움을 넘어 감동과 영혼 있는 메시지, 살아있는 정신이 담긴 작품을 그려나가고 싶다"고 말한다.

홍익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최 작가는 서울, 독일, 베를린, 파리 등에서 30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266-12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파꽃이 맥문동을 만났을 때'

사계절의 처음을 담다

최석운 전 25일까지 행촌미술관

해남군 문내면의 작은섬, 임하도에는 이마도작업실이 있다. 행촌문화재단 행촌미술관이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창작 레시전시 공간으로 지금까지 60여명의 작가가 다녀갔다.

경기도 양평에 작업실을 두고 있는 서양화가 최석운 작가는 지난해 7월부터 이마도작업실에 머물며 작업을 했고 오는 25일까지 행촌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연다. '이마도二馬島_낙원樂園으로부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당초 3개월만 머물려 했던 작가는 사계절을 다 경험해보고 싶어 체류 기간을 연장했고 처음 본 파꽃, 처음 먹어본 보리숭어, 지천에 널린 쑥과 진달래꽃으로 만든 처음 먹어본 화전 등 많은 '처음'을 경험하며 사계절을 통과했다. 그리고 '낭만적인 고립을 느끼는 유배지'인 작업실에서 작은 배롱나무, 고양이, 바닷가 등대, 붉은 땅에 그려진 풍경, 그 곳에 터 잡고 살고 있는 사람 등을 화폭에 담았다.

쨍한 느낌의 원색을 사용하는 그의 작품들은 해학적이고, 유쾌하다. '대파를 안고 있는 여자'는 말 그대로 땀 흘려 수확한 대파를 한아름 안고 포즈를 취한 농부의 밝은 얼굴이 눈길을 끄는 작품이며 '배롱나무'는 흐드러지게 핀 배롱나무 아래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는 고양이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또 까치와 고라니가 노는 풍경, 달빛 비추는 유채꽃 무더기 아래 쉬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도 흥미롭다.

특히 작업실을 둘러싼 파밭에서 발견한 파꽃과 무꽃, 새들을 함께 그려넣은 현대판 '화조도'는 유쾌한 느낌을 준다. 임하도 바다에서 건져올린 보리숭어는 작가의 식탁에 올랐다 그림이 됐고, 동백꽃이 프린트된 바지를 입고 물고기를 든 동네 주민도 그림의 주인공이 됐다.

부산대 미술학과와 홍익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한 최 작가는 30여 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가나아트부산 창작스튜디오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1-533-3663.

/김미은 기자 mekim@

'대파를 안고 있는 여자'

'영산강 문화체험' 온라인으로 만나요

영산강문화관, 5~7일 접수

K-water 영산강보관리단(단장 신창수)·영산강문화관(관장 김창호)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교육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영산강의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영산강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용소 자석보드 만들기 ▲정자 꾸미기 ▲황포돛배 만들기다. 온라인 교육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영상을 지원하고 동영상을 시청한 뒤, 교구를 활용해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체험비는 무료이며 신청자에 한해교구를 집으로 우편발송 해준다. 교구신청은 영산강문화관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5일부터 7일까지 선착순 마감한다.

영상은 영산강문화관 공식채널(유튜브, 네이버 카페)을 통해 공개되며 영상강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1-335-08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